

# “후손에 온전한 평화를”...광주시 종전선언

83개 단체 참여 비상시국회의  
정전협정 67주년 맞아  
평화협정 전환 촉구  
전남서도 공동선언 이행 요구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광주비상시국회의는 27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7·27광주시민 종전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원배 기자choi@kwangju.co.kr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에서 한반도 평화와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았다.

광주지역 83개 단체가 참여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광주비상시국회의'는 27일 5·18민주광장에서 '정전협정 67주년 7·27 광주시민 종전선언식'을 가졌다.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광주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종전선언식을 가진 뒤, "휴전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다. 평화협정으로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진짜 평화다"고 강조하며 종전선언문을 채택했다. 광주비상시국회의는 지역의 83개 단체가 참여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로 조성된 남북관계 긴장과 한반도 정세 극복 등 민간분야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기구이다.

광주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지역의 205개 단체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1980년 5월 민중항쟁과 2016년 촛불 항쟁으로 시민항쟁의 전통을 창출한 광주시민은 이제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가 아닌 후손들이 맡게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평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지는 양측의 역사적 합의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정착하는 이정표가 됐다"며 "정전협정 67년을 맞아 우리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재개, 남북철도와 도로연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민적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6·15공동선언과 4·27판

문점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나주·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전남병무청, 현역병 본인선택 접수 시작

31일부터...입영일자 직접 선택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도 현역병 본인선택"은 다음해 현역병 입영 희망자가 본인의 학업·취업 등 일정에 맞춰 입영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입영 신청자가 '입영 희망월'만 선택하고 12월이 돼야만 정확한 입영일자와 부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입영제도 개선으로 내년도 현역병 입영 신청자부터는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입수학능력시험일 연기 등 정부 정책을 반영해 병역판정검사를 늦게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도 입영신청 기회가 고르게 갈 수 있도록 3번에 나눠서 입영신청을 받는다.

1회차 접수는 7월 31일, 2회차는 9월 25일, 3회차는 12월 11일 각 오후 2시로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입영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 간편 인증방식 등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일(다음연도)' 메뉴에서 다음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교육시민참여단 1주년...교육협치 다짐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육정책 참여를 통한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최근 정기회를 통해 지난 활동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역할에 관해 토론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출범 이후 매월 넷째 주 목요일마다 정기회를 개최하고 3개 분과(교육협치분과, 지역협력분과, 학교자치분과)로 나눠 숙의하고 토론한 의견을 권고안으로 제출해 왔다. 또 교육현

안에 따른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인권을 존중하는 스톱미투 권고안'을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스톱미투 사안 처리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지난 3~4월에는 교육청과 손잡고 '코로나19 극복, 시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시민캠페인을 진행했다. '협오·차별 안하기', '지역사회와 함께 마스크 만들어 나누기' 등 교육협치 실천 활동을 전개했다. 시민캠페인은 29개 단체와 15개소 마을교육공동체, 35개 학교 학부모회 등이 참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전남대병원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선정

부산대·경북대병원과 컨소시엄  
신약·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전남대병원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혁신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부산대병원·경북대병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화순전남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도 참여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대형병원에 집적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 의료기술 연구 및 신약·의료기기·인공지능(AI)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데이터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전산장비 도입보장을 통한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 ▲데이터 보안, 표준화, 정제 등을 통해 표준보급 확산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AI, 신약개발, 암 데이터, 주요 질병 등 분야별 데이터 특화 추진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기술, 인공지능 등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등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컨소시엄 병원의 임상 데이터를 클라우드 내 수집 및 표준화함으로써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국내 의료발전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역량을 갖추는 데 큰 힘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북구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코로나19 경영난 해소 도움  
8곳에 인건비 등 8억여원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112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오는 29일(예비)사회적기업 8곳과 '2020년도 제2차(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50%이상 의무 고용, 목표매출액 달성, 표준근로계약 체결 및 참여 근로자 복무관리 등의 의무사항을 지키고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북구는 '제2차(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8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7월까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 총 8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 종료 후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기업에는 재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북구는 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근간인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교육청 교직원 대상 청렴 다짐 문구 공모

전남교육청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다짐 문구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8월 7일까지이며 감사관실 실무자 개인 이메일(ccamuel@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된 작품은 청렴 심계명으로 등록해 신규 공무원 직무 교육, 재직자 교육훈련과 각종 연수 때 활용하고, 각종 부패 예방, 청렴 정책, 홍보 등을 할 때 문구로 사

용할 예정이다. 당선자 10명에게는 은누리상품권(3만~10만원)을 준다.

김성인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청렴 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에 많은 교직원이 참여해 생활 속에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동구 '청년 진로 콘텐츠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광주 동구가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 등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 진로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참여자를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7월에 계획된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잠정 중단됐으나, 선발 과정을 비대면 인터뷰로 전환하고 비접촉 방식으로 모집방법을 변경했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나의 생각과 관심사 발견하기', '인터뷰 이론과 실습', '관

계의 중요성'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야 탐색과 연구역량강화 과정인 '#나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후, 연구팀을 구성해 진로콘텐츠 발굴 연구원으로 9월 한 달간 진로탐색 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자는 다양한 직업탐색을 위한 '이색 직업인' 발굴 연구에 참여하고, 해당분야 현장중재자 인터뷰를 통해 실제 직업의 세계를 간접 경험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평범한 사람의 **사회생활** 이야기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서점 판매 | 광주(충장서림, 삼복서점, 초원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림), 전주(웅진서적, 민중서관, 흥지서림)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영풍문고(배송료 무료)